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절 후 제2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2(통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추위를 피해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 때에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 내린 빙판 길을 지나듯 뒤통거리며 지날 수밖에 없는 일상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이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잠시 넘어졌다해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해 바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들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께 쉽게 떠넘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드림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이루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실천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쉬지 말고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전10:13 인도자

♠ 교 독 문 31. 시편68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인혁 선생 II.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515(통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함께

성경봉독 I. 눅19:1-9 인도자

II. 사32:1-8 이형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뽕나무에서 바라 본 것 김재홍 목사

II. 정의의 새 나라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391(통446). 오 놀라운 구세주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불의를 보며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불의로 인해 고통 당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지도자들이 눈과 귀가 멀었다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만 살아온 삶을 반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새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가 바로 우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 , 동교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복되도다 형제 자매의 사랑!	기도 : 이성운 전도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서현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홍순구 권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호원 김 극 정경례 고숙이 서정순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종(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있는 그대로 함께 부르심받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느님은 지극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지극히 서로 다른 문화와 계급 및 나라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으로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성과 다양한 기질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설된다. 이것은 곧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지닌 온갖 차이점과 함께 사랑해야 하며,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람들은 결코 서로 함께 살기로 작정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인간적 능력이나 자연 발생적인 공감대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함께 살도록 불러 주신 그들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그들 모두가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 불가능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강력한 표지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표지도 된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13:35)

예수님은 사도들로 최초의 공동체를 구성하실 때, 모든 면에서 무척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 베드로, 마태오(세리), 시몬(다혈질적임), 유다 등. 이들은 스승이 불러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함께 어울리는 일이 없었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하느님이 오늘 우리 곁에 데려다 놓으신 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표징이다. 우리라면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스럽고 총명한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신 이들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일치를 이루고 계약을 실천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들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공동체 활동도 더 다채롭고, 전례도 훨씬 장엄하게 집전하는 더 큰 공동체에 가서 살고 싶어한다. 반대로 큰 공동체에서 살면 이상적인 소규모 공동체를 꿈꾼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혼자 보낼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지루해하면서 삶에 의미를 줄 만한 어떤 활동을 애타게 찾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것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잡힌 평화롭고 아주 화목한 공동체, 모든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흠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개인의 평정과 조화는 여러 해 동안 많은 노력이 있는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은총과 평화도 섬광처럼 일순간 반짝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만일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의 평정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란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결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대가 있는 곳에다 자신을 바쳐라. 그대를 응시하지 말라. 그대보다도 곤궁에 처한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응시하라.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이 그대에게 보내주신 이들과 가까이 지내라. 오늘 하느님이 그대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수행하라. 그대가 어떻게 하면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여쭙어라. 그러면 그대는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찾고 있는 내면과 외면, 기도와 활동, 자기 시간과 타인의 시간 사이의 훌륭한 조화를 발견하며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완벽한 공동체를 뒤쫓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오늘의 그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타인의 결점을 찾지 말라.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오히려 그대 자신의 결함을 주시하고, 타인이 그대를 용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대 역시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사랑의 회심을 이루도록 하라.

-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중

저를 통해 빛나소서

좋은신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제 영혼을 당신의 영광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저의 전 존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저의 전 존재에 온전히 스며드시어 저의 삶이 당신 빛을 드러내는 반사경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빛나시고, 저와 함께 머무소서. 그리하여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제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되리니. 오 주님, 그들은 제가 아니라 당신을 우러르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소서.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을 환히 비춘 당신과 같이 저도 한 점 빛으로 빛날 수 있사옵니다. 오, 주님. 모든 빛은 오직 당신으로부터 올 뿐,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통해 다른 이를 비추는 빛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께서 깊이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제 주위의 모든 이를 비추는 그 사랑으로.

소리치지 않고도 당신을 설교하게 하소서. 말로써가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으로, 제가 하는 일의 성실한 열매로, 당신으로 인해 제 마음에 가득찬 그 사랑으로써 당신을 보여 주게 하소서. 아멘.

- 뉴먼 추기경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김철수 유영남 강인식 김정숙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윤석철 장혜숙
김준호 곽혜자 김용길 최영혜 권미숙 안정숙 이광용 형인순 이정규
이인섭 왕성환 강순배 임 영 정경례 윤미경 우순덕 김준우 김정길
최숙화 구명자 김훈동 김윤수 박상호 김혜권 김정섭 문복순 박애순
배삼순 박효선 방 민 박영희 박시내 박창운 허정윤 백묘현 배근수
김금순 박옥식 윤수진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조병주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손성현

월정헌금:

고속이 김남종 오복순 김남홍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김시영 김종문
문금석 문홍일 류건형 이주은 배부례 박석희 조항미 박준규 서지영
이인웅 이유선 방극숙 이정은 이재문 오재환 이봉배 안길상 이형숙
임원민 임수연 유지은 이광섭 이갑재 송영희 송의섭 전영자 정현숙
정두리 정완수 김재광 조순덕 최윤희 황자순 황원순 한성건 하정석
이명희

감사헌금:

김준우 이재문 곽권희 백묘현 권혁신 김영순 송동준 김진경 김미순
김지현 김지은 임주빈 최현옥 전성오 류건형 최윤키 박영주 이혜수
유경순 민동혁 김수은 하재두 강미선 참빛찬양대 무명8

생일감사헌금:

이은자 이미혜

녹색꿈 헌금:

박영희 장원호 이지훈 (누계: 8,961,000원)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신26장 중)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구역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역회를 엽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당회서기, 감사, 각 부서장, 선교회 총회장, 기관 대표입니다.
2. **동호회** : 구역회 회원이 아닌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설날** : 다음 주일에는 명절 연휴 관계로 점심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후 집회도 쉽니다.
4. **실천** :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다음 주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설거지 도우미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